

# “역사 반추해야” 이순재 x 설민석의 근현대사+독도 소신

EBS 2019 역사 다큐멘터리 기자간담회...내달 5일 대단원 막 내리

26일 ‘설민석의 독도로’ 방송...“올바른 역사관 통해 역사 되짚어야”

연기자 이순재와 역사 강사 설민석이 EBS를 만나 근현대사를 넘어 현재의 역사에서도 문제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는 EBS 2019 역사 다큐멘터리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배우 이순재와 역사강사 설민석, 허성호 PD, 이승주 PD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과 광주학생운동 90주년을 맞아 EBS 다큐프라임은 ‘청년’을 주제로 10부작 대기魄 다큐멘터리 ‘역사의 빛 청년’을 방송해왔다. 지난해 8월15일 프롤로그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개의 시즌, 총 8부까지 시청자들을 만났고 오는 11월5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다. 그간 국민배우 이순재가 진행을 맡아 일제강점기를 12년간 살아본 유경험자로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균형 잡힌 안목으로 질곡의 한국근현대사를 재조명

해왔다.

오는 26일 방송되는 ‘독도의 날’ 특집 다큐 ‘설민석의 독도로’는 인기 역사강사 설민석이 처음으로 EBS에 출연하는 다큐멘터리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독도에 사연이 있는 각계각층, 남녀노소 7인의 독도탐방기를 그린다. 우리 땅 독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모인 7인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를 탐방하며 각자의 시각에서 느낀 독도의 감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허성호 PD는 EBS 역사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 “EBS는 올해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과 광주학생운동 90주년을 맞이해서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0년 전의 역사가 현시점에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미래 사회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려한다”라며 “독도 위안부 등 현재의 역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

고 얘기했다.

이순재는 EBS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해 “EBS는 드라마를 안 만드니 내가 나올 일이 없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방송이니까 기꺼이 출연했다. 100주년에 대해 모든 언론매체가 다른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역사적인 고증이 아니고 청년이라는 의미를 담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했다.

이순재는 청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에 대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이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청년 학생이 함께한 거국적인 운동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방송에서 역사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육방송에서 반드시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올바른 역사관을 통해 역사를 되짚어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설민석은 ‘설민석의 독도로’에 출연하게 되면서 독도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2005년 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독도를 카메라 하나 매고 다녀왔는데 그때는 일본이 자국의 교과서에 독도가 본인들의 땅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뜨거운 이슈였다”라며 “지금도 왜곡된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 저희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니 이럴 때 저희가 독도에 가보고 주권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찰나에 EBS 측에서 연락이 왔고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설민석은 새로운 역사관을 주장하는 이순재의 이야기에 덧붙여 “저는 관용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다. 인간은 협력의 동물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건전한 비판이 아닌 맹목적인 비난이나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는 모습보다 내 의견만 말하려는 태도는 협력이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사자의 자세로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려는 관용의 정신이 갈등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역사의 빛 청년’은 오는 11월 4일과 5일 오후 9시50분 방송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설민석의 독도로’는 26일 오후 4시 방송된다.



배우 이순재, 설민석 작가(오른쪽)가 23일 오전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EBS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의 빛, 청년’, ‘설민석의 독도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역사의 빛, 청년’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과 광주학생운동 90주년을 맞아 준비한 대기魄 다큐멘터리로 청년 애국지사들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 구혜선 “안재현과 크게 다툰 적 없어, 너무 억울한 이혼” 주장

여성지 인터뷰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워”



배우 구혜선은 안재현과 불화가 알려진 후 느낀 심경을 고백했다.

23일 여성 매거진 우먼센스는 구혜선과 진행한 인터뷰와 화보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구혜선은 “어느 날 안재현이 (내게) 설렘이 없어졌다고 했다”며 “그 후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재현이 연기 연습을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며 “어느새 오피스텔은 별거를 위한 공간으로 변해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크게 다툰 적이 없었다”며 “나로서 너무나 억울한 이

혼”이라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또 구혜선은 “(안재현에게) 전화를 걸어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다”며 “최근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집에 겨울옷을 가지러 가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이제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사랑이 아닌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혜선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로 여기며 씩씩하게 살 것”이라고 전했다.

## YG “빅뱅 전역 현장 방문 자제 부탁”

돼지열병 방역 우려



(왼쪽부터) 빅뱅 지드래곤·태양·대성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빅뱅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각각 전역과 관련해 팬들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23일 오전 빅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BIGBANG 지드래곤, 태양, 대성 전역 현장 방문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팬들에게 이들 전역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YG는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복무하고 전역 예정인 부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 점검지로, 더 이상의 전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당국 역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 상황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팬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전역 현장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